

고창인천강 하구습지 '국가습지보호지역' 지정

**연안과 하구·육상 생태계
습지축 연결 국내 첫 사례로
멸종위기노랑부리백로서식
보전·보호속도...경제 활성화**



고창인천강 하구습지 전경.

고창인천강 하구습지가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. 전국 25번째로 연안과 하구, 육상생태계를 습지생태축으로 연결하는 국내 첫 사례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.

24일 고창군은 아산면과 심원면 일대의 고창 인천강 하구습지가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환경부로부터 전국 25번째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이날 지정·고시됐다고 밝혔다.

인천강 하구습지는 고창아산 반암교에서 용선교까지(면적 722,000㎡)로 자연원형이 잘 보전된 서해안 열린 하구로써 멸종위기생물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며 연안(갯벌)-하구(인천강)-육상(운곡습지) 생태계를 연결하는 국내 첫 보범사례

(습지 생태축)이다.

특히 기존 습지보호지역인 고창갯벌(해양수산부)과 운곡습지(환경부)를 생태적으로 연결하는 지역으로 연안과 내륙의 생태계를 연결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으며 멸종위기종 1급 노랑부리백로 등 야생생물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종이 살고 있다.

군 관계자는 "인천강하구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통해 야생 동·식물 서식환경 보전과 보호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"면서 "운곡습지, 고창갯벌, 고창선운사 등과 연계한 생태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보전과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다"고 전했다.

/고창=신동일기자·sd@